

한국전기연구원서 2년여 활동하는

루마니아 Curiac Grigore Paul박사

한국과학재단 초청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의 전기자동차 및 전동기응용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마니아 과학기술자 Curiac Grigore Paul 박사는 영구자석 여자전동기 기본설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1998년 12월부터 초빙연구원으로 2년여 동안 한국에 체류중인 그는 앞으로 새로운 위상 기하학과 물질에 기초를 둔 자석응용과 고속의 전력전자기계를 구동시키는 미래발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한국의 과학과 기술 수준은 대단합니다. 이러한 과학 기술적 성과는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굉장히 많은 양의 훌륭한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대량생산보다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면서 고품질의 상품을 만드는 혁신적인 계획, 특히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할 수 없는 세계화시대로의 당연한 이동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Curiac Grigore Paul박사(루마니아 ·60세·한국전기연구원 전기자동차 및 전동기응용연구팀/사진)

는 한국의 과학기술적 발전은 이제 다른 차원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한국에서 2년여를 생활하고 있는 그는 현재 ‘고효율 고효출력 횡축형 영구자석 여자전동기 개발’ 등 전동기 설계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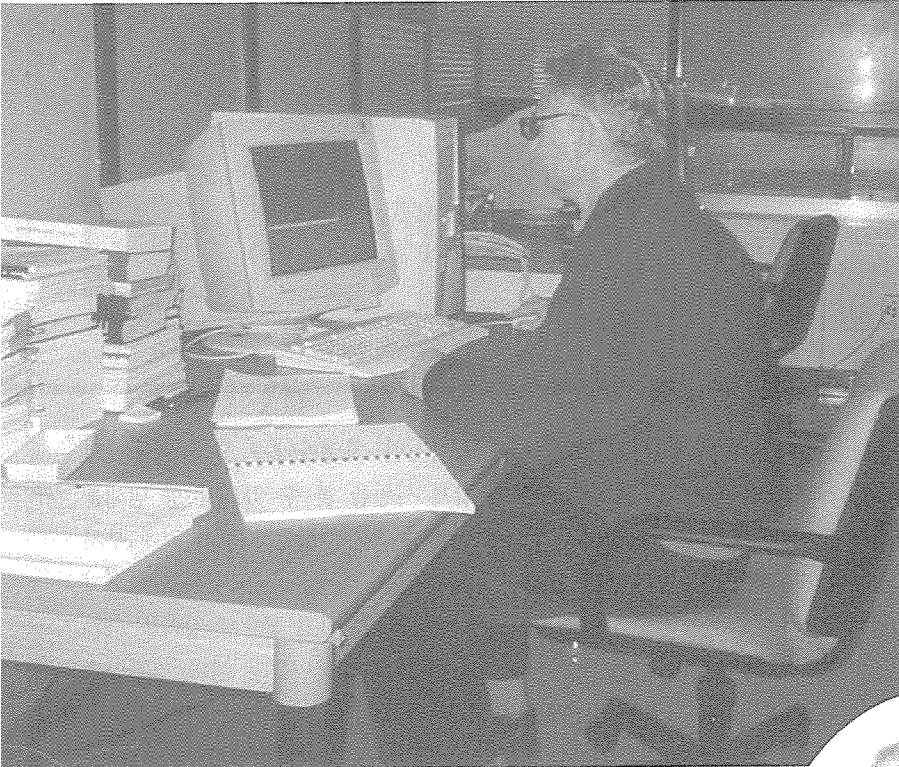
한·루마니아 교류 확대를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징조와는 반대로 발전해가고 있는 한국의 저력에 놀라워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한국의 여건들이 그의 연구에 많은 도움으로 작용하여 현재 진행중인 루마니아 전동기 설계관련 자료 정리, 영구자석 여자전동기 기본설계, 유한 요소법에 의한 전자계 시스템 상세 설계 등의 연구가 순조롭다고 만족해한다.

Curiac Grigore Paul박사는 한국 사람들도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수학올림피아드의 결과로 볼 수 있듯이 루마니아도 여전히 모든 분야에 있어 유럽에서 높은 학문적 단계를 자랑한다며, 한국과의 교류는 두나라 사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루마니아에서는 영어, 독일어 혹은 프랑스어 등 다국적 언어를 사용하는 학과들과 대학교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루마니아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제화되어 있으며, 수업료도 단지 형식적인 정도로 저렴해 학문 발전에 유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경제적으로는 경공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과학분야에서도



특수한 설비들은 꽤나 인상적인데, 이 장비들의 사용영역을 넓히기 위해 한국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의 산학협동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산업체와 연구소 그리고 대학에서 온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에서 자신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Curiac Grigore Paul박사는 앞으로 새로운 위상기하학과 물질(특히 고에너지 영구자석에 대한)에 기초를 둔 자석응용과 고속의 전력전자기계를 구동시키는 미래 발전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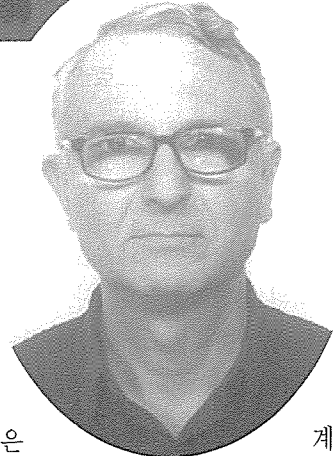
한국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쾌활하며 또한 다정스럽고 솔직하며 루마니아 사람들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한다.

취미가 농구와 여행이라는 그는 사계절이 분명히 구분되는

한국에서 바다여행과 산행을 즐기는 즐거운 생활에 만족해 했다.

Curiac Grigore Paul박사는 1983년 부카레스트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98년 12월부터 한국전기연구원 초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T**

송해영 <본지 객원기자>



상당한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하면서 전기공학분야에 있어 두나라 사이의 협력이 서로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의 케르나보다 핵발전소로부터도 한국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도 역시 칸두형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는데, 루마니아의 중수가 세계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것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

Curiac Grigore Paul박사는 지난 97년 5월 19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루마니아 사이의 과학기술협력에 대

한 합의에 기초를 둔 서울의 한양대학교와 부카레스트의 열(화력)발전 장비를 위한 연구발전소 간의 협약에서 보듯 직접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은 서로에게 상당히 유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

고속전력기계 구동 연구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경험 많은 고급 연구원들과 재능이 있고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고급의 연구소라고 평가하는 Curiac Grigore Paul박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